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이번 주 아침묵상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  
됩니다.

## 3. 대강절(Advent) 둘째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강절 기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하루가 되시기  
를 바랍니다.

## 4. 성탄감사주일&송년주일

12월 24일(주일) 성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2월 31일(주일)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갖지 않으며 1월 첫째주 신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 지난 주 (12/3)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2,025.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전주은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1:67-80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돌보아 속량하시고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2월 17일(대강절셋째)	12월 24일(성탄감사)
이우선	윤원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5) 주의 손이 그와 함께

본문 : 눅1:57-66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더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치유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또는 영적인 치유에만 초점을 맞추면 삶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 눈을 뜨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눈을 뜨고 난 뒤부터 우리의 시선은 더이상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치유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예수 믿기 전처럼 상처가 있고 불완전한 삶이 있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을 보는 자는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믿음이 없으므로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이 출생하게 되자 비로서 말문이 열려서 무언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첫번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분명 믿음이 없었던 사가라인데 어떻게 갑자기 믿음의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었나, 그는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병어리로 귀머거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문의 전통과 문화속에서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집한 첫번째 이유는 천사가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자, 자비를 입은 자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0개월동안 침묵하면서 묵상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하게 된 사가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자신의 가슴속에 깊이 새긴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요한의 일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의 출생을 모든 친족들과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먹고 잘살고 유명해 질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평생 예루살렘이라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터전을 박차고 나와 광야에서 생활하며 걸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역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질그릇같은 인생을 산 것이고 보잘것 없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는 자신 안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름처럼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함을 보게하는 열매인 것입니다.